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January
주간 전남농업
VOL. 219

2019년
1월 다섯째주



더 달고 덜 신 녹색 참다래 '감록' 심으세요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5 ~ 0도, 최고기온 : 5 ~ 8도)보다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0 ~ 1mm)보다 조금 적겠음

2. 주간 농사정보 6

- ▶ 벼
- ▶ 밭작물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8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토종닭 4품종, 국제 시스템에 이름 올려
- ▶ aT, 못난이 딸기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수출에 성공하니, 지역경제도 농가소득도 쑥쑥↑
- ▶ 일본산 감귤, 홍콩서 한국산에 밀려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6

- ▶ 황금돼지해에 선보이는 ‘황금팽이’
- ▶ 더 달고 덜 신 녹색 참다래 ‘감록’ 심으세요
- ▶ 아스파라긴 가득 ‘땅콩 싹나물’, 숙취 해소에 ‘딱’
- ▶ 지난해 열매 적게 달린 배 과원, 지금 관리 시작해야

6. 정책 동향 20

- ▶ 전남농기원, 도내 권역별 신소득 아열대 과수 단지 조성!
- ▶ 전남도, 설 앞두고 시방역활동 강화
- ▶ 시장을 선도할 미래식품 개발, 농식품부가 돕겠습니다.
- ▶ 전남도, 올해 농정 화두는 ‘미래혁신현장’
- ▶ 전남농기원, 농업 현안과제 해결에 박차!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5

- ▶ ‘봄 향기’ 미리 맛보세요...‘거문도 해풍 썩’
- ▶ 순천시, 프리미엄 들기름 500병, 해외시장 첫 수출!
- ▶ 설날 선물세트 과대포장 '이제 그만'

- ▶ 순천시 풍덕동, 설 명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로 풍성
- ▶ 담양군,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추석명절맞이 귀농·귀촌 홍보
- ▶ 고흥군, 벼 안전육묘 위한 종자 발아력 검사 무료지원
- ▶ 화순군, 벼 일반 재배농가 병해충 예방 육묘상자처리제 신청하세요!!!
- ▶ “해남 배추를 팔아라” 해남군, 소비촉진 마케팅 총력
- ▶ 영암군, 2019년 축산농가 지원사업 신청 접수

8. 해외 농업정보 34

- ▶ 일본 식품유통 전문가가 말하는 ‘2019 과실 트렌드’
- ▶ 전 세계 유기농 식품 지속 성장, 전년 성장률 14% 초과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 1. 28.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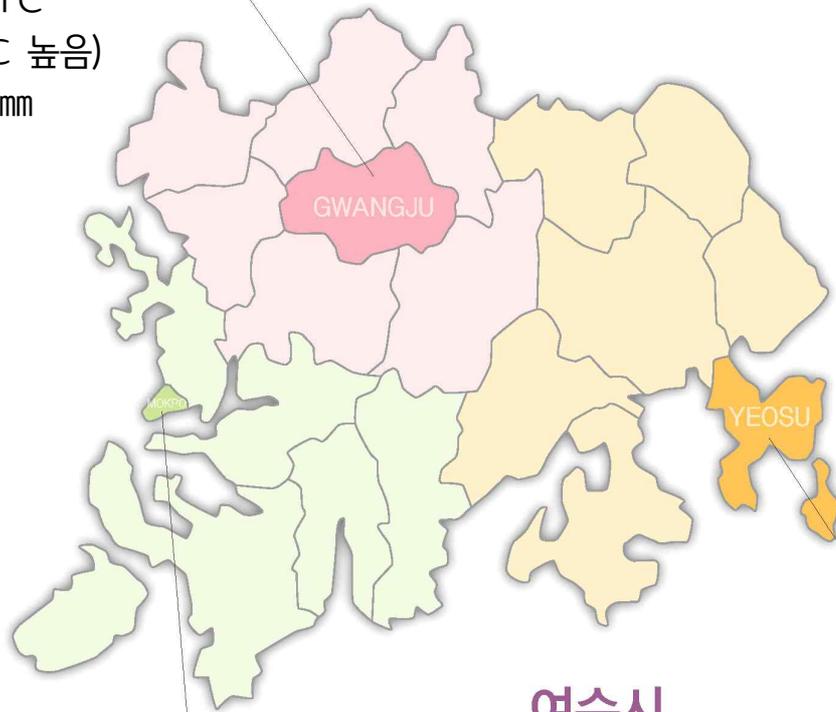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7

- ▶ 우유 생산 능력·체형 좋은 젖소 씨수소 4마리 선발
- ▶ 설 전후 ‘제초제’로 산소 잡초 관리 하세요!
- ▶ 전남농기원, 온라인 직거래 ‘해피굿팜’ 설 기획상품 판매
- ▶ 우리 농산물, 설맞이 선물로 안성맞춤
- ▶ 청림한세상

10. 전라남도 주간농업정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43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1°C
(평년대비 -1.3°C 낮음)
- 최고기온 : 6.7°C
(평년대비 1.6°C 높음)
- 최저기온 : -1.1°C
(평년대비 2.5°C 높음)
- 강 수 량 : 0.8mm



목포시

- 평균기온 : 0.0°C
(평년대비 0.7°C 낮음)
- 최고기온 : 5.9°C
(평년대비 같음)
- 최저기온 : -0.6°C
(평년대비 1.5°C 높음)
- 강 수 량 : 0.6mm

여수시

- 평균기온 : 0.7°C
(평년대비 -1.1°C 낮음)
- 최고기온 : 7.4°C
(평년대비 1.3°C 높음)
- 최저기온 : 0.6°C
(평년대비 1.9°C 높음)
- 강 수 량 : 0.5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벼

- 벼씨 준비 -

- 자가 채종한 농가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함
- 등숙기에 잦은 강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발생 종자는 발아 검사 필요
- 수발아 포장 종자의 발아율은 70~72%로 정상 종자의 97~98%보다 낮음
- 신품종 재배 시 적응지역,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특성을 파악하여 특정 병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재배를 피해야 함
- 벼 정부보급종 추가신청(1.31.일한), 공급시기(1.10~3.31.)

- 저장관리 -

- 품질손상을 줄이기 위해 15% 이하 함수율과 15℃ 이하 온도 및 70% 이하 습도 저장
- 저장 중에 발생하는 곰팡이나 해충은 악취, 변색, 발열, 독소 등을 생성시켜 벼 품질손상의 원인이 됨
- 곰팡이는 벼 함수율이 14.5% 이상이고 저장 온도가 22℃ 이상의 경우 포자가 발생하고 균사가 형성됨
- 해충은 함수율 12% 이하에서도 번식할 수 있지만 저장 온도가 15℃이하에서는 번식을 중지하고 10℃이하가 되면 생육이 중지됨
- 저장고에 건조 저장용 송풍기의 동력전달 벨트 장력과 보조열원 장치의 작동 유무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고구마 관리 -

- 고구마 재배를 위해 10a에 필요한 묘는 4,500~7,100본 정도이고 매회 1,500~2,200본의 싹을 생산할 수 있는 씨고구마를 준비함
- 씨고구마는 병들지 않고 건전하며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저장 중 냉해를 입지 않은 고구마를 선택하여야 함
- 씨고구마에 전염되는 검은무늬병, 건부병, 검은점박이병, 덩굴쪄김병 등의 발생이 염려되므로 침투성 살균제로 소독하거나 온탕소독을 실시함
- 씨고구마를 묻은 후 1차 채묘까지의 기간은 전열온상과 양열온상에서는 40일, 최아비닐냉상 50일, 비닐냉상 50~60일,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한 전열온상에서는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
- 묘상은 싹을 기르는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차가운 북풍이나 서북풍을 막을 수 있는 자연적인 지형을 선정하고 햇볕이 잘 쬐이는 장소가 좋으며 묘상구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지하수위가 낮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함
- 묘상의 폭은 120~130cm가 묘상관리 및 채묘작업에 용이하며 묘상사이는 30cm가 적당하고 길이는 묘상의 크기에 따라 조정함
- 상토가 너무 얇으면 건조하기 쉽고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하며 너무 깊으면 온도가 잘 오르지 않으므로 상토는 한 쪽에서부터 차례로 펼쳐야함
- 전열온상은 묘판 구덩이를 30cm 정도로 파고 맨 밑에 10cm 두께로 짚, 왕겨를 넣거나 50mm 두께의 스티로폼으로 단열시킨 다음 모래나 상토를 3~5cm 두께로 깔고 전열선을 설치한 후 상토를 15~18cm 두께로 넣음

*출처 : 농촌진흥청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1. 28.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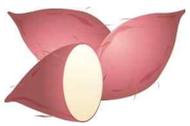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20kg	49,380	49,380	↑ 2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80	40,800	39,467	↑ 25.1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35kg	184,200	184,200	↑ 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4,800	164,000	154,133	↑ 19.5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0kg	37,800	37,200	↑ 1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200	33,050	24,727	↑ 52.9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20kg	37,400	38,600	↓ 3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800	53,700	30,220	↑ 23.8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0kg	4,400	4,500	↓ 3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6,875	6,178	↓ 28.8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8kg	5,100	5,400	↓ 38.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760	8,250	6,030	↓ 15.4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00개	74,000	70,000	↑ 17.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4,867	63,167	80,974	↓ 8.6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20개	27,400	26,400	↓ 1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640	32,550	33,130	↓ 17.3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60kg	1,157,200	1,167,200	↓	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2,000	1,180,000	760,000	↑	52.3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0kg	49,000	46,8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800	73,250	72,243	↓	32.2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20kg	125,000	125,000	↓	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000	133,400	133,400	↓	6.3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20kg	11,880	12,460	↑	9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880	24,000	22,067	↓	46.2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20kg	28,400	29,000	↑	9.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440	26,000	23,720	↑	19.7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kg	1,540	1,460	↓	28.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84	2,150	1,983	↓	22.3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5kg	35,800	36,800	↓	2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680	44,950	38,630	↓	7.3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개	23,000	22,000	↓	7.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920	24,950	27,343	↓	15.9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0kg	29,000	29,600	↑	2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640	23,650	31,493	↓	7.9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5kg	28,000	25,200	↑	5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480	18,200	20,770	↑	34.8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0kg	45,000	45,800	↑ 1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440	38,550	39,902	↑ 12.8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5kg	57,000	53,000	↑ 10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480	36,900	41,310	↑ 38.0

단감(단감)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2kg	31,400	29,800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480	32,750	25,687	↑ 22.2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00g	8,339	8,206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49	8,247	7,449	↑ 11.9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kg	5,992	5,891	↑ 33.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34	4,497	5,138	↑ 16.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30kg	496,200	496,2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800	499,000	523,333	↓ 5.2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2kg	15,600	13,800	↑ 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480	14,400	14,540	↑ 7.3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2kg	8,400	8,000	↑ 1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440	7,600	9,010	↓ 6.8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00g	1,736	1,750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57	1,730	1,800	↓ 3.6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30개	4,976	4,963	↓ 5.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95	5,286	5,880	↓ 15.4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8)	1주일전 (1/21)	전년대비	
1L	2,621	2,621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1	2,518	2,540	↑	3.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1. 28. 기준 / 단위: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92	5,826	5,599	↓ 2.3	↑ 1.7
거세	6,369	6,616	6,444	↓ 3.7	↓ 1.2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097	3,088	2,932	↑ 0.3	↑ 5.6
수	3,676	3,719	3,486	↓ 1.2	↑ 5.5

육우(60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3,753	3,84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4	↑ 13.4

젖소수송아지(7일령)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284	26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0	↑ 158.2

돼지(11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293	31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5	↓ 12.3

육계(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2,249	2,3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2	↑ 110.0

계란(원/특란10개)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812	75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1	↓ 22.5

오리(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2,200	2,3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1	↓ 12.2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토종닭 4품종, 국제 시스템에 이름 올려

- 우량 종자 산업 육성 품종... 우수 토종닭 공급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리나라 토종닭 4품종을 전 세계가 참여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올렸다.
- 이번에 등재한 닭은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 황금종자사업)의 토종 씨닭 종자 개발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4품종 10계통이다.
- 이 닭들은 주식회사 한협원종에서 유지·보존하고 GSP를 통해 체계적으로 종자를 개량해 온 품종이다.
- 잘 자라고 알을 많이 낳는 우수 품종은 상업용 씨닭 생산과 보급에 활용하고, 일부 품종은 미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으로 보존한다. 산학연이 함께 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씨닭 개발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백숙용·삼계용 등 목적에 맞춰 토종닭을 개발하고 있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 시스템이다.
-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의 가축 유전자원은 소, 돼지, 닭 등 15축종 120품종/계통 품종(Breed)으로 확대됐다. 닭의 경우, 고문서와 고화 등을 토대로 모범 농가와 국가 연구기관에서 복원한 긴꼬리닭, 제주재래닭, 현인닭, 횡성약닭, 연산오계, 황봉 등의 재래종과 이번에 등재한 한협 갈색 코니쉬 등 40품종/계통의 이름이 올라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천동원 소장은 "이번에 등재된 닭은 우리나라 토종닭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자원으로, 앞으로 골든시드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aT, 못난이 딸기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비규격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 혈값으로 팔리던 수출용 못난이 딸기가 유명 프랜차이즈카페의 인기메뉴로 탈바꿈하게 되어 판로를 걱정하던 딸기생산농가의 시름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는 지난 1월17일(목) 서울 aT센터에서 수출용 못난이 딸기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명프랜차이즈업체와 딸기생산자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용 딸기생산농가는 혈값에 넘기던 비규격품 딸기를 40~50% 높게 판매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업체는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는 등 도농 간 상생협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 지난해 국내산 신선딸기는 약 5천 톤(약 530억 원)이 아세안지역으로 수출되는 등 대표적인 수출유망품목으로 떠올랐지만, 까다로운 수출상품규격에 막혀 수출되지 못하는 일부 비규격품 딸기는 산지 폐기되거나 국내 가공업체에 혈값으로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이번 협약으로 딸기수출농가들은 수출용 비규격품 딸기를 유명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유한 탐앤탐스, 커피베이, 더치앤빈 등 전국 1,000여 개 매장에 제철딸기음료 원료로 납품하게 되었다.
-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식품기업들이 딸기 이외에도 다양한 국내 비규격품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가 상생할 수 있는 힘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에 성공하니, 지역경제도 농가소득도 쑥쑥↑



- aT, 수출유망품목 “미래클 Best 5 품목” 선정 -

- 우리 농식품 수출을 이끌어 갈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으로 새싹인삼과 쌀스낵, 유자에이드베이스와 오미자음료, 킹스베리가 선정됐다.
- 베트남 B2B시장 공략에 성공한 장성의 새싹인삼은 높은 사포닌 함유량을 지닌 기능성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앞까지 먹을 수 있는 샐러드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지 호텔레스토랑 등 12개 매장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된 새싹인삼 쌀국수, 비빔밥, 튀김 등은 6천 그릇 이상 팔려나갔으며, 유명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메이에메랄드와는 30만 달러의 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국 유기인증을 획득한 곡성산 영유아용 쌀스낵은 지난해 강소성, 절강성 내 121개 고급 베이비숍에 입점하여 약 6만 달러의 신규 수출실적을 올렸다.
- 찬물에도 잘 풀리도록 개발한 고흥산 유자에이드베이스는 일본의 194개 주류전문점에서는 유자탄산음료로 런칭되었다. 중국의 우육면 프랜차이즈 74개소와 말레이시아 비건 레스토랑 6개소에 음료와 슬러시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등 B2B시장을 적극 공략한 결과, '17년 대비 78%의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 다섯 가지 맛을 가진 기능성음료라는 스토리텔링에 성공한 문경 오미자는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푸드트럭 이벤트 연계 온라인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17년대비 약 200% 증가한 16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 복숭아향이 나는 논산 왕딸기 킹스베리는 지난해 12월 첫 수출 길에 올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에 3만2천 달러가 수출되어 국산딸기의 고급화, 차별화에 성공한 사례로 호평 받고 있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산 감귤, 홍콩서 한국산에 밀려



-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홍콩에서 일본산 감귤이 한국산보다 높은 가격 설정으로 수출에 고전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의 농산물 최대수출국인 홍콩에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홍콩 현지에서 일본산 과일은 특설코너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고, 개당 판매가 아닌 패키지에 넣어 선물용으로 어필하고 있다.
- 12월 홍콩에 유통되는 감귤은 일본산과 한국산이 주를 이루며, 한국산도 일본산과 마찬가지로 패키지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다.
- 한국산은 일본산보다 과실 크기가 약간 작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밀착형 슈퍼마켓에서는 일본산 1봉(6개) 434~504엔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한국산은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 홍콩 통계에 따르면 온주밀감류의 수입량은 연간 약 3만 톤으로 미국과 호주, 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다. 일본산의 홍콩 수출은 통상 12월이 피크로 연초 이후에는 감소된다.
- 한편, 홍콩에서는 춘절(2월4일)을 대비해 1월이 가장 과일의 수입량이 많고, 감귤을 포함한 선물용으로 고급과일 수요가 높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홍콩사무소에 따르면 이 시기야말로 수출확대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연초 일본산 수출에는 저장 등 종래와 다른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판매대의 상품진열을 생각하면 완속 전 수확이 필요하다.
- 연초의 일본 내 시세가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을 결정하지 못하는 산지도 적지 않은 것이 실태다. 감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지 않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과와 같은 산지형성이 급선무다. 정부도 산지를 좁혀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황금돼지해에 선보이는 '황금팽이'

- 새 품종 '아람'... 색깔 좋고 상품 가치 높으며 재배도 쉬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백색팽이가 점유한 팽이시장에 소비자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황금팽이 '아람' 품종을 개발했다.
- '아람'은 갓이 둥글고 황금색을 띠며, 전반적인 색이 좋아 상품 가치가 높다. 또한, 갓에 반점이 없고 대 아랫부분이 기존의 갈색팽이보다 밝아 싱싱해 보인다.
- 이 품종은 올 4월 품종보호출원을 마친 뒤 기술이전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농가에 종균을 보급할 계획에 있다.
- 황금팽이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50~67g/100g으로 백색팽이보다 2배가량 높고, 영지버섯·상황버섯 등 다른 버섯보다도 월등히 높다.
- 일반적으로, 팽이는 3대 영양소와 비타민B1, C 및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함량이 100g 당 6.2g으로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일품이다.
- 더불어, 팽이는 질병 예방에 중요한 대사 작용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그 외에 항균, 항염증, 항종양, 면역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
- 팽이는 천연 피로회복제인 타우린과 단맛을 내는 글루탐산의 함량이 높아 국물 맛이 시원하고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 탕, 찌개, 볶음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원식 버섯과장은 "팽이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영양학적 가치가 우수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더 달고 덜 신 녹색 참다래 '감록' 심으세요

- 수확 시기 빨라 서리 피해 걱정 없고 관리 쉬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월께 과수 품종을 갱신하는 농가에 국산 녹색 참다래 새 품종 '감록'을 추천했다.
- 현재 국내 참다래 시장은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녹색 과육의 '헤이워드' 품종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40%)는 황금색(골드)과 붉은색(레드) 과육의 참다래로 이루어져 있다.
- '헤이워드'는 저장 능력이 뛰어나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출하할 수 있지만 신맛 때문에 꺼리기도 한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를 대체할 품종으로 녹색 과육에 신맛이 적으며 단맛은 더한 '감록'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 후숙 후의 당도는 18브릭스로 높고, 산 함량은 낮다.
- 11월 15일께 수확하는 '헤이워드'에 비해 10일 가량 빠른 11월 5일 전에 수확할 수 있다. 따라서 서리를 맞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낮다. '헤이워드' 수확 시기는 가을 서리와 저온 피해가 나타나는 때다. 피해를 입으면 저장성이 떨어지고 부패과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찍 거둬들이면 단맛이 충분히 들지 않아 후숙해도 단맛이 오르지 않고 신맛만 더 많이 느껴진다.
- 녹색 참다래는 골드 참다래보다 재배와 후숙 과정에서 색 발현 걱정이 없고, 재배 기술에 따른 편차가 적어 품질 관리가 쉽다.
- 최근 새 품종 보급을 위해 전문가와 농업인 등이 참석한 평가회에서 '감록' 품종은 달고 향이 좋아 '녹색 참다래의 편견을 깨는 맛', '맛으로 승부하는 품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참다래 '감록' 품종은 2016년 통상실시 돼 2017년부터 농가에 묘목이 보급되고 있다. 묘목 구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남해출장소(☎055-864-150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아스파라긴 가득 '땅콩 싹나물', 숙취 해소에 '딱'

- 말리면 함량 더 높아져... 국·무침 요리에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땅콩 싹나물의 뛰어난 영양과 기능성을 소개하고, 땅콩 싹나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제시했다.
- 땅콩은 올레산을 비롯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 필수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
- 땅콩에서 싹을 틔운 땅콩 싹나물에는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과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 있다.
- 특히, '신팔광' 품종의 말린 싹나물 100g에는 약 1,100mg의 아스파라긴이 들어 있는데, 주로 줄기와 뿌리 부분에 많다.
- 땅콩 싹나물을 활용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땅콩 싹나물국과 땅콩나물무침이 있다.
- 땅콩 싹나물국은 먼저, 땅콩 싹나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다듬는다. 물에 넣고 7분에서 10분 끓인 뒤 소금으로 간을 한다.
- 땅콩나물무침은 소금을 약간 넣고 끓인 물에 땅콩 싹나물을 7분에서 10분 데친 다음 다진 마늘과 땅콩기름, 소금, 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준다.
- 땅콩 싹나물에는 사포닌이 들어 있어 먹을 때 약간 쓴맛이 나는 데,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효과가 있다.
- 땅콩 싹나물은 온라인몰이나 지역상품 판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생땅콩을 구입해 가정에서 콩나물처럼 길러 먹을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과 곽도연 과장은 "땅콩 싹나물은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앞으로도 맛과 기능성이 뛰어난 땅콩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지난해 열매 적게 달린 배 과원, 지금 관리 시작해야

- 속음 가지치기, 밑거름은 적게, 긴 가지는 놓혀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해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은 배 과원은 가지 치는 시기인 요즘부터 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해 배꽃이 피는 시기에 저온 피해를 입어 열매가 적게 달렸던 과수원에는 지나치게 웃자란 가지가 많이 나고 꽃눈의 웃자람(재생장)도 일어난다.
- 품질 좋은 배를 생산하려면 겨울철 속아내기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고, 겨울철 퇴비 사용 줄이기, 봄철 열매가 열리는 가지(결과지) 놓이기 작업을 해준다.
- 웃자란 가지가 많으면 가지 윗부분을 잘라주는 '절단 가지치기'보다 가지의 아랫부분을 잘라내는 '속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이 때, 나무 전체의 가지를 많이 쳐도 남은 가지의 자람은 많지 않으며, 꽃눈은 많이 나고 웃자란 가지는 적다. 속음 가지치기 후 남은 가지의 끝(가지 선단)을 잘라주면 중간에서 웃자란 가지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지마름병이 확인된 농가는 병 진행 속도를 고려해 가지치기를 늦춰서 가지를 쳐야 한다.
- 밑거름을 줄 때는 가축부산물 퇴비를 기존보다 덜 주거나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햇가지가 잘 자라지 않거나 과실이 잘 크지 않을 때는 웃거름을 5월~6월 상순까지 한두 차례 나눠 뿌려준다. 웃자란 가지가 많거나 꽃눈이 죽은 나무는 이미 질소가 많이 쌓여 있으므로, 가능하면 질소 성분이 많은 가축부산물 퇴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 길게 자란 전년도 가지(2년생)를 잎이 나오기 전 3월 하순까지 가지 놓이기(유인작업)를 해주면 꽃눈이 잘 생기고 나무 자람새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m 이상 길게 자란 가지는 잘 놓혀지지 않기 때문에 톱으로 살짝 잘라낸 다음 놓혀준다. 잘린 부위는 테이프나 천으로 묶어둬야 상처가 쉽게 아물고, 병해충의 침입도 막을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농기원, 도내 권역별 신소득 아열대 과수 단지 조성! ❄️

- 2022년까지 4년간 40억 투입, 집중 육성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22년까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남 지방의 따뜻한 기후를 활용한 권역별 아열대 과수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 2019년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균특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 지난 해 8월 시군 공모·심사를 통해 4개 권역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는 2080년까지 한반도 경지면적의 62.3%가 아열대 기후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아열대자원의 소득작목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아열대과수의 노지재배 가능성 또한 커져 전남의 따뜻한 기후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 높은 환경이다.
-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중부서해안지대(자유무역지대)에 속하는 함평군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 남부해안지대 고흥·진도군 애플망고 재배단지 조성, 동남경제자유지대 순천시 농촌체험 관광형 열대과수(애플망고) 단지조성, 북부산간지대에 속하는 화순군 패션프루트 단지를 조성한다.
- 지난 2018년 농진청에서 선발한 20대 아열대작목 재배면적은 82.5ha로 전국 316ha의 26.1%를 차지하며, 도 자체조사 과수 12작목(참다래, 무화과 제외)의 경우 309ha로 고흥, 완도 등 남부 지역에서 비파, 석류, 부지화 순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고, 올해 단지화가 조성될 애플망고, 백향과, 레드향 등의 재배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문의 기술보급과 채연경 주무관 061-330-2782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도, 설 앞두고 시방역활동 강화



- 연휴 전후 일제 소독...홍보전단현수막문자 알림 등 방역 홍보 -

- 전라남도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AI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설 전에는 주요 교통시설 이용 귀성객을 대상으로 무안공항, 터미널, 기차역 등 대중교통 요충지에서 AI 방역 관련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터미널과 마을 입구 등 귀성객에게 많이 노출되는 장소에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국민 방역 협조사항 등 행동요령 홍보전단을 배포한다.
- 주요 공중파 방송사의 자막 방송과 마을 방송을 통해 철새 도래지와 축산시설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하고, 설 명절 기간 동안 방역 기관별(27개소)로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대응인력을 준비토록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 또한 설 연휴 전후인 31일과 2월 7일 두 차례 축산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특별소독을 한다. 축산밀집지역철새도래지 주변 및 주요 도로는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보유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실시한다.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엔 농협 공동방제단 99개단이 전담 지원활동을 펼친다.
- 대규모 축산농장주와 축산계열사엔 자체 소독시설을 활용해 축사 내외부와 차량장비기자재에 대해 촘촘히 청소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도축장 경영주에겐 명절 전후 도축장 일제 청소 및 세척소독을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AI 반복 발생농가 앞에 설치한 방역초소 27개소를 계속 운영해 관계자 외 출입차단과 농장 주변 소독 등을 강화한다. 설 전후 도 간부공무원 22명과 도 방역담당공무원 점검반을 편성해 시군 방역 추진 상황, 거점 소독시설 등 주요 방역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출처 : 전라남도



시장을 선도할 미래식품 개발, 농식품부가 돕겠습니다.



- '19년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 '미래형 혁신식품'이란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화 되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거나 향후 새롭게 개발·보급될 식품이지만 국내 기술기반 및 산업화가 미진한 식품 분야로 정의될 수 있다.
- 전세계적으로 1인가구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가,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동물복지·친환경·건강지향 등 윤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관련 식품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세계적인 식품트렌드에 부응하여 미래 식품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을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대상과제를 맞춤형 혁신식품, 천연 안심 소재 산업화로 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 공고기간은 1월23일부터 3월8일까지 45일간 진행하고, 신청·접수기간은 2월27일부터 3월8일까지 10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고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사업공고란)에 상세내용이 공지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올해 농정 화두는 ‘미래혁신현장’



- 저비용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활력있는 농업 농촌 조성 온힘 -

- 전라남도는 농업농촌의 활로 모색,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미래혁신현장’을 핵심 농정과제로 정하고, 저비용 고소득 생명농업을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어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전체 농가의 80%인 중소농의 소득 안정대책을 마련해 농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며, 농업인 월급제,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등으로 중소농에게 도움을 주는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 또한 영농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에게 첨단정보기술(ICT)을 접목한 창업플랫폼을 제공하고, 최대 3년간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매년 1천여 명씩의 청년혁신 인재를 양성해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시설 원예농업을 첨단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오는 3월 농식품부의 2차 공모에 선정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아열대작물 연구재배가공체험시설을 갖춘 ‘농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하고 있다. 마스터플랜과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지를 선정하고, 2023년부터 기반시설을 본격 조성할 방침이다.
- 산지 대규모 농공단지 형태의 ‘친환경축산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위해 ‘이전지원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 또한 농산물의 과도한 유통비용(유통비용 44%, 농가수취 56%) 발생에 대응해 나주 호남권물류센터와 연계한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체계를 운영해 물류비를 13.3%까지 절감,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전남 푸드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고, GMO 없는 안전 식재료 간장된장두부 3개 품목을 학교급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2020년까지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전라남도



전남농기원, 농업 현안과제 해결에 박차!



- 쌀 수급안정,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농업 현안문제 적극 대응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19년 전남 농업 경쟁력 향상과 쌀 수급안정,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보급 136개 시범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주요사업으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하여 유기재배 시범단지 27개소 조성, 유기재배 기술 8건 개발,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현장 컨설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시군 1특화작목 사업은 진도 단호박, 영암 시설팥고추, 고흥 석류, 영광 모싯잎 등 각 시군별로 차별화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신규 특화작목을 선발·집중 육성하기 위해 28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쌀 소비감소,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벼 대체작목 작부체계 기술 보급, 생산비 절감을 위한 소식재배, 드론 활용 항공직파, 무논점파 농법도 확대 추진한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스마트팜 현장기술지원 거점센터 구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 축산 경쟁력 향상 ICT 융복합 기술과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산업곤충 소득 자원화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 우리지역에 적합한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를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기술보급과 김선표 주무관 061-330-2772

*출처 :전남농업기술원



‘봄 향기’ 미리 맛보세요... ‘거문도 해풍 썩’



- 1월 16일부터 전국 e마트, 메가마트 등에서 만날 수 있어 -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월 16일부터 지역 대표 특산품인 거문도 해풍썩을 전국 e마트와 메가마트, 거문도해풍썩영농조합 홈페이지 등에서 만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 가격은 2kg 한상자에 3만 원이며, 생썩은 물론 냉동썩, 썩떡, 썩차, 분말 등 다양한 가공품도 판매한다.
- 거문도해풍썩은 청정지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썩향이 짙고 영양이 풍부하다. 또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 여수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거문도해풍썩 브랜드를 육성했고, 썩 가공식품 개발, 힐링체험장 및 판매장 운영 등 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 담당부서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 061-659-4511)



*출처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0125



순천시, 프리미엄 들기름 500병, 해외시장 첫 수출



- 2018년 농특산물 수출 100억 달성 및 2019년 수출목표 110억 원으로 상향 설정-

- 순천시는 지난 2018년 농특산물 수출 100억 원 목표를 달성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수출목표를 110억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 올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청신호로 지난 17일 순천시 소재 사회적 기업이자 농어촌융복합기업인 농업회사법인 기도서주식회사에서 생산된 ‘자연그대로 들기름 500병(180ml)’이 첫 대만 수출길에 올랐다.
- 그동안 순천시와 함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로 대만에 첫 수출을 시작했다.
- 이번에 대만에 수출한 자연그대로 들기름은 저온압착방식으로 착유한 프리미엄 들기름으로 오메가3가 60%이상 함유되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으며, 대만 내 전체 방송국 시청률 TOP3에 들어가는 대만FTV를 통해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 업체 관계자는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 수출품목으로는 주로 김치류, 장류, 한과, 매실청 등이 생산되어 미국, 일본, 중국으로 수출되었지만, 이번 들기름 대만 수출을 계기로 음식문화권이 유사한 아시아 전역으로 판매망을 넓혀나가는 기회를 마련됐다”는데 이번 첫 수출의 의미를 부여했다.
-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 900여종이 순천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순천로컬푸드 매장에는 매월 실시하는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에 적합한 안전농산물만 취급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순천시@0125



설날 선물세트 과대포장 '이제 그만'



- 순천시(시장 허석)는 설날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약 62%가 포장재 폐기물로 필요 이상의 포장은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포장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실시한다.
-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와 선물용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이며,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 등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이 대상이다.
- 점검에서는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시관계자는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의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제품 구매를 통해 폐기물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순천시

❄️ 순천시 풍덕동, 설 명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로 풍성 ❄️

- 풍덕동새마을협의회, 복방앗간 사랑의 쌀 30포 기부 -

- 순천시 풍덕동에는 설 명절을 맞아 새마을협의회를 시작으로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 지난 18일 풍덕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김영찬)에서 10kg 쌀 20포를 복방앗간(대표 이경원)에서는 20kg 쌀 10포를 기부했으며, 기부된 쌀은 저소득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됐다.
- 풍덕동 새마을협의회는 ‘사랑의 쌀’을 11년째 후원해 오고 있으며, 지역축제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으로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후원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이번 기부에 참여한 복방앗간도 7년째 명절이면 ‘사랑의 쌀’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이어와 주변의 미담이 되고 있다.
- 풍덕동 이정우 동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이웃돕기 사랑 나눔이 끊임없이 이어진데 대해 감사드리며, 배려와 나눔을 통해 주민과 함께 행복한 동네가 되도록 나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순천시

담양군,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추석명절맞이 귀농·귀촌 홍보

- 희망귀농·귀촌 홍보 현수막 게시, 주요 관광지서 관광객 대상 홍보 -

- 담양군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연휴기간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홍보 활동을 펼쳤다.
- 군은 담양공용버스터미널과 담양읍 향교에 ‘희망귀농·귀촌’을 담은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지난 21일에는 담양군귀농귀촌협의회원과 함께 메타프로방스와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리플렛과 에코백 등을 나눠주며 담양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지리적 입지여건 등을 홍보했다.
- 행사에 참여한 귀농귀촌협의회원들은 “명절을 맞이해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담양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함께해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군 관계자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 팸투어와 현장실습,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인 영농정착 아카데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담양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담양농업기술센터



고흥군, 벼 안전육묘 위한 종자 발아력 검사 무료지원



- 우량종자 미 확보 농가 큰 도움 돼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못자리 안전육묘를 위한 종자 발아력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농가에게 지원하고 있다.
- 우량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게 발아력 검사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드시 자가채종 종자 사용 농가는 법씨 200g(종이컵 2컵)에 주소, 성명, 품종, 연락처를 기재하여 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5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 발아율이 높은 종자를 확보하여 육묘하면 초기 영농에 도움이 되므로 발아율 8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종자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 군 관계자는 “발아율이 낮은 종자를 파종하면 생산성과 품질이 저하되므로 발아검사를 통해 우량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득이 발아율이 떨어지는 종자는 증파하여야 하며, 종자 소독약은 반드시 정량, 온도, 침지시간을 준수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화순군, 벼 일반 재배농가 병해충 예방 육묘상자처리제 신청하세요!!!

-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소득 안정화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적극적인 농업농촌의 경제활력화 및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의 균정을 펼치기 위해 관내 벼 일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화순군에 따르면 농가 고령화 및 부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소득 안정화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모내기 직전 모판에 간단하게 뿌려주는 것만으로 여러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육묘상자처리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한번 사용으로 잎도열병, 벼물바구미, 애멸구 등 다양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벼 재배기간 동안 병해충 방제 횟수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병해충 방제 생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약제이다.
- 화순군은 관내 벼 일반재배(4,000ha)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벼 친환경재배농가는 제외), 각 읍·면사무소에서 1월말까지 신청 받아, 2월에 약제를 선정 후, 4월에 농가에 공급하여 적기 병해충 예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재배 농가를 제외한 벼 일반재배 농가들이 한 농가도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해남 배추를 팔아라” 해남군, 소비촉진 마케팅 총력



- 출향기업 등 수도권 판촉활동, 농특산물 특판전 개최 -

- 해남군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추 소비촉진을 위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달 말까지 해남 가을·겨울배추 1만 1,802톤의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시장격리와 병행해 배추 소비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남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 겨울배추 10kg(3포기) 1상자를 6,900원 가격으로 특가 판매하고 있다. 우체국 쇼핑몰 등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번 특판전을 통해 19일 현재까지 13,000여박스(130톤)가 판매완료 되는 등 높은 판매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또한 유통지원과장 등 군 관계자들은 수도권 출향기업 등을 찾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배추 판로확보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한 판촉활동을 전개했다.
- 이번 판촉활동을 통해 매년 수도권 특판 행사를 꾸준히 함께해오고 있는 서울 봉은사와 조계사에서도 특판전 행사 일정을 조기 확정하고, 해남 농특산물 판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강남의 랜드마크이며 도심 전통문화 사찰인 봉은사에서는 신도들과 방문객이 가장 많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겨냥해 2월 18~19일까지 특판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는 신중기도일 행사 대비 5월 5~7일까지 특판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봉은사 행사는 겨울배추를 이용한 김치 담그기를 비롯해 배추 나눔행사, 배추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 행사 등으로 해남배추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 출처 : 해남군



영암군, 2019년 축산농가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월 31일 까지 신청하세요!! -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올해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정책, 축산육성, 동물방역의 3개 분야 35개 사업,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 지원된다.
-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가축폭염예방 장비, 인공수정료 지원, 꿀벌산업 지원, 맞춤형 축산 기자재, 방역백신, 가축방역 차단시설, 가금농가컨설팅, 가축사육기반 시설 등이 있다.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 및 법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 영암군에서는 읍·면에서 신청된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성 검토를 한 후 오는 2월 중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영암군

❄️ 일본 식품유통 전문가가 말하는 '2019 과실 트렌드' ❄️

- 일본 농업신문이 청과물 도매회사와 생활협동조합, 소매점 등 49개사의 청과물 유통전문가에게 올해 과실 트렌드 및 산지에 대한 요청사항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2019년에 주목할 과일 순위는 샤인머스켓(포도), 베니마돈나(감귤), 유라와세(조생귤), 베리슈호(체리), 군마메이케츠(사과), 캠페이(감귤)·골든키위(키위), 나가노퍼플(포도), 카요(자두), 세토카(감귤)·신칸센(배), 르 렉치에(서양배)순으로 나타났다.
- 바이어가 과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맛」(80%, 복수응답)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가격」(35%), 「간편함」(20%), 「당도」(16%)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맛있는 과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한, 껍질 채 먹거나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으며, 당도가 높은 과실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일본 소비자들은 산미가 적은 과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과실 산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는 균등한 품질 및 안정적인 수량 공급, 산지정보제공, 안전 및 안심대책, 신제품도입, 저가격, 농업생산공정관리, 먹는방법제안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설문결과 일본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당도에 산미가 적은 과실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의 경우 일본의 소비자가 수입산 과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 소비자가 선호하는 당도가 높은 과실과 유통관계자들이 특히 중시하는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수량 공급」에 맞추어 일본 과실시장을 접근하고 개척한다면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 전 세계 유기농 식품 지속 성장, 전년 성장률 14% 초과 ❄️

- 소비자들이 음식,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유기농 식품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 최근 TechSci Research 보고에 의하면 2016~2021년 전 세계 유기농 식품 전년 성장률은 14%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유기농 식품과 천연식품의 차이점은 유기농 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항생제, 인공 색소, 유전자 변형 성분 등이 사용금지 된 제품으로 “유기농 인증” 절차가 있다. 하지만 천연식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 유기농 식품 생산과정에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 국내 원료 부족으로 유기농 사료를 제공하는 축산업 생산자들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 유기농 식품이 일반적인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유기농 식품 재배는 전통식품과 구분하여 재배, 수확, 가공, 운송해야 함으로 제품 원가가 높아진다. 그리고 전통 식품 재배 지역을 유기농 재배 지역으로 전환하는데 일정한 과도시기가 필요한데 이 시간동안 생산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반면 여러 가지 비용은 여전히 지출이 된다.
-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유기농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 등 식품뿐만이 아니라 유기농 화장품, 방직제품 모두 사람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유기농제품이 사람들의 대환영을 받게 되면서 여기저기 모든 제품들이 “유기농”이라는 명찰을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유기농 제품은 제품 생산 과정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다. 소비자들은 유기농 제품을 구매 할 때는 라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 1. 28. 시카고 선물거래소) ❄️

- 대두 선물가격, 미·중 무역회담의 낙관론에 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3% 하락했다. 밀 선물 가격은 3월 계약 후 WH9가 5주간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한 민간 회사가 러시아의 밀 수출에 대한 견적을 올렸다는 소식을 발표한 뒤 기술매도로 하락세로 마감했다. 러시아의 농업 컨설팅 업체인 Sovecon은 러시아의 2018/19년도 밀 수출 전망치를 3,510만 톤에서 3,56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럽 무역업자들은 알제리의 국영 곡물업체인 OAIC가 입찰에서 약 20만 톤에서 25만 톤의 두럼밀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9%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은 금요일에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증서부의 한파로 인해 국내 최종 소비자와 수출 터미널로의 곡물이동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주 또 한 차례의 추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두 선물가격은 브라질의 대두 수확량의 감소와 다음주 미·중 무역협상의 화해의 제스처로 중국이 미국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0%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3월 SH9가 브라질의 곡물규모와 다음주에 있을 미·중 무역회담이 신규 매출을 창출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인해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은 12월 99% 감소한 6만 9천 298톤에 불과하며, 중국의 2018년 수입량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대두 생산국인 파라나주가 2018/19년도 수확량 전망치를 1천 910만 톤에서 1천 680만 톤으로 추정치를 낮추었다.

곡물 선물가격 동향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우유 생산 능력·체형 좋은 젖소 씨수소 4마리 선발



- 상위 2% 선발... 3월부터 정액 공급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소장 문명호)는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위원장 전북대 이학교 교수)를 열고 젖소 보증씨수소 4마리를 새로 선발했다.
-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4마리는 '모하비(H-531)', '그란데(H-532)', '크라운(H-540)', '럭키(H-544)'다.
- 젖소는 임신과 출산 과정 등을 지속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위해 우유생산량 못지않게 체형을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에 뽑은 4마리는 체형 심사에서 모두 우수한 특성을 드러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김시동 과장은 "이번 씨수소들은 북남미·유럽 국가의 씨수소 15만 3천여 마리의 우유 생산, 체형 유전능력과 비교해 우수성을 입증받은 만큼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새로 선발한 젖소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서 2월부터 생산하고, 3월부터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 한편,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과 정액 공급은 정부 주도의 젖소개량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 보증씨수소 선발은 해마다 능력이 향상된 소를 뽑아 우수한 정액을 공급함으로써 전국 젖소가 생산하는 딸소 능력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설 전후 ‘제초제’로 산소 잡초 관리 하세요!



- 농촌진흥청, 효율적인 산소 잡초 관리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설 명절을 맞아 제초제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산소 잡초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현재 우리나라 산소에는 196종의 잡초가 발생해 잔디에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산에서 땀감용 나무나 잡풀 등을 채취하지 않게 되면서 더 많은 잡초 종자가 날아와 산소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선 산소의 잔디 싹이 나오기 전인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입제형 제초제인 클로베닐입제, 뷰타클로르·디클로베닐입제 등 6종류를 산소와 그 주변에 뿌리면 4~5월까지 종자로 번식하는 일년생이나 다년생 잡초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설 전후에 입제형 제초제를 뿌리지 못했거나 잘못 뿌려 다시 잡초가 발생한 경우, 잡초 발생 특성상 줄기로 번식하는 잡초의 경우에는 농약을 판매하는 곳에 문의해 잔디 생육시기에 맞는 제초제를 구매해 뿌리면 된다.
- 제초제는 지나치게 사용하면 약해가 발생해 잔디까지 죽을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는 적정량을 지켜 사용한다.
- 또한 남은 제초제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게 되면 성분이 변하거나 무슨 약제인지 알 수 없어 오·남용할 수 있으므로 농약포장지 그대로 꼭 밀봉한 후 바람이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한편,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산소 주변의 작물 재배지가 농약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정해진 양의 농약을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농기원, 온라인 직거래 ‘해피굿팜’ 설 기획상품 판매 ❄️

- 네이버 포탈에서 “전남 우수 농식품” 검색하세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해피굿팜’에서 사과·배 혼합상품, 잡곡세트, 수제 유가공품, 꽃감 등 다양한 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업인들의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피굿팜(<http://shop.goodfarm.net>)’에는 약 800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소비자들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에 “전남우수농식품” 판매장터를 개설하고 우수 농식품 260여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그동안 해피굿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족한 해피굿팜 운영협의체 회원들은 고객확보와 직거래 확대를 위한 판촉행사와 공동판매를 실시해 오고 있다.
-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판매지원을 위해 다양한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자원경영과 김덕현 팀장 061-330-2593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우리 농산물, 설맞이 선물로 안성맞춤



- 농촌진흥청, 소규모 농업경영체 알리기에 앞장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소규모 농업 경영체를 지원해 다양한 식량작물 가공제품을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2019 설맞이 명절 선물전'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는 전국 23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하는 식량작물 가공제품을 전시했다.
- 이 행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는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사업 대상자와 소규모 농업경영체로 식량작물을 이용한 54개 가공제품을 설 선물로 소개했다.
-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땅콩 품종 '신팔광'을 가공한 새싹땅콩 차와 환, 쌀 품종 '팔방미'를 원료로 한 쌀국수 등이 인기를 끌었다.
- 참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설맞이 명절 선물전 행사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 행사가 경영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7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행사에 참가한 충남의 한 농업경영체 대표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품을 홍보할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앞으로 시범사업과 행사를 통해 소규모 농업 경영체 지원은 물론, 경영체의 판로 확보와 우수 품종 활용 기술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규모 농업경영체 판매 제품은 참기름과 들기름, 된장, 고추장, 땅콩새싹차·환, 쌀국수, 쌀빵, 삼색보리 등이며, 온라인과 전화 상담 후 구매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청렴한세상 - 자신을 비추는 거울(2)



#4. 해법



#5. 다음은 없다!



“아, 너무들 하시네. 공무원들 많이 변했다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하!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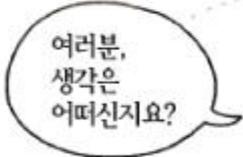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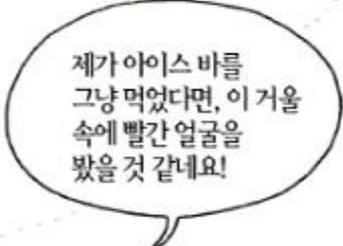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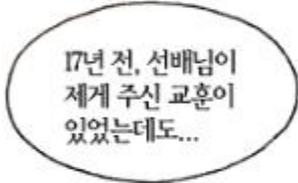
“한 명이 무언가 사 들고 관공서에 다녀오면 그걸 본 몇몇 사람이 무언가 사 들고 가게 되지요.

청탁은 독감처럼 전염됩니다. 그러니 청렴에는 ‘다음에’ 같은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계적 제약회사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은 정책결정 과정 마지막에 '빨간 얼굴 테스트'라 불리는 독특한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나 행동이 가족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청렴'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 주간 날씨정보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특보·예보 > 육상예보

2. 주간 농사정보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 농업인 > 농업예보

3. 주요 농축산물 주요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 가격정보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는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보도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 보도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시장동향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보도자료

6. 정책동향

- 전남농업기술원(www.jares.go.kr) > 보도자료
- 전라남도(www.jeonnam.go.kr) >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보도자료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농업기술센터(www.yeosu.go.kr) > 보도자료
- 순천시(www.suncheon.go.kr)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담양군농업기술센터(atc.damyang.go.kr) > 열린광장 > 보도자료
- 고흥군(www.goheung.go.kr) > 군정소식 > 보도자료
- 화순군농업기술센터(www.hwasun.go.kr) > 열린마당 > 보도자료
- 해남군(www.haenam.go.kr) > 열린군정 > 군정보도
- 영암군(www.yeongam.go.kr) > 보도자료

8. 해외 농업정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뉴스 > 수출뉴스 > 시장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www.krei.re.kr) > 해외곡물시장일일시황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농촌진흥청(www.rda.go.kr) > 보도자료
- 전남농업기술원(www.jares.go.kr) > 보도자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VOL. 219

